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과 투표 참여 행동

오 선 영

성균관대학교

송 영 훈[†]

강원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들 간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의 차이가 2016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학생 유권자의 투표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표 참여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권자들의 자유·평등 가치 지향 수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일 전과 후 30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절된 매개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들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유권자들의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은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투표 참여 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투표 참여 행동 간의 관계는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의해 매개되었다. 또한 이러한 매개 관계는 유권자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 수준이 낮을 때 유의한 반면 높을 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를 결정하는 유권자들의 심리적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인의 인지적 특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어 : 갈등 마인드셋, 정치적 대립, 정치 참여, 투표 행태

[†] 교신저자: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E-mail: younghoon.song@kangwon.ac.kr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어떻게 관리되는가에 따라 사회분열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더 나은 민주사회로의 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와 단체들의 의견들이 서로 경합하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거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발전시켜왔다. 민주주의의 실현이 공정한 선거와 투표 참여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 참여 행동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선행 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심리적 요인들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투표 행태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Leighley & Vedlitz 1999). 우선, 나이, 계층, 성별, 교육 수준 및 경제적 수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소들은 유권자들의 이념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정치 참여 및 투표 행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esina & La Ferrara 2005; Verba, Scholzman, Brady, & Nie 1993). 또한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정치적 선택이 유권자의 가치와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화된 영역의 행동임을 입증하였다(Gallego & Oberski 2012).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이외에 개인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개인 간 차이를 특징짓는 성격적 특성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ney, Jost, Gosling, & Potter 2008; Mondak & Halperin 2008; Gerber, Huber, Doherty, Dowling, Raso, & Ha, 2011; Gallego & Oberski, 2012; Hibbing, Ritchie, & Anderson 2011; Mondak, Canache, Seligson, & Hibbing 2011). 예를 들어, 유권자의 개방성과 외향성은 각각 선거 운동 및 집회 참여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데, 특히 개방성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투표 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Mondak, Hibbing, Canache, Seligson, & Anderson, 2010). 국내에서도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선거 관련 유권자들의 의사결정과

투표 행위는 명백하게 심리적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2011; 김현정, 박영옥, 박상희, 2015).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기저에 작용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투표 참여를 비롯한 투표 행태를 설명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인지적 특성에서의 개인차가 투표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의 작용을 설명하는 데 주로 동기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Gallego와 Oberski(2012)는 성실성이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의 의무 수행 동기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Gerber 등(2011)은 외향적인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을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높은 동기를 토대로 설명하였다. 비록 이러한 연구 결과가 투표 행태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하였지만, 투표 행동이 정치 현상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정치적 판단의 결과물임에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표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인지적 특성으로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mindset)의 작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적 판단 및 행위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정보를 탐색하는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체계적인 정보처리의 산물이 아니라, 판단 상황에서 이용가능한 단서와 발화된 자기 지식, 혹은 직관 등에 의존하는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노혜경, 2012). 유권자들은 매우 신중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이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뉴스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투표 참여를

철회하거나(Elenbaas & de Vreese, 2008),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등(나진경, 허진, 2016), 자신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결정을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에 의지한다.

정치 행동과 휴리스틱 정보처리 과정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들이 갈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식, 즉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을 인식하는 데에 작용하여, 투표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투표 참여 행동에서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립을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에서의 개인차가 정치적 대립을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인식에 기여함으로써 투표 참여 행동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또한 정치 참여에서 개인의 가치를 강조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한하는 경계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행동의 기저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인드셋의 정의와 마인드셋의 작용

마인드셋이란 사람들이 어떤 정보나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여 경험을 개인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사고의 틀(mental frame)이다(Freitas, Gollwitzer, & Trope 2004).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적절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사려 깊게 처리하기보다 상황적 단서에 의해 활성화된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즉시적인 추론과정에 의존한다(Uleman, Saribay, & Gonzalez 2008).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을 통해 여과된 주

관적인 해석의 산물이므로, 객관적으로 같은 상황이나 현상을 목격하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며 심리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Burnette, O'Boyle, VanEpps, Pollack, & Finkel 2013).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마인드셋의 차이가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어, 지능이 변한다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성격은 변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연인과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문제해결적 논의를 하는 반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Kammrath & Dweck 2006). 또한 노화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마인드셋은 흡연과 건강 행동에서의 차이를 가져왔으며, 38년 후의 심혈관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Levy, 2003; Levy, Zonderman, Slade, & Ferrucci 2009). 스트레스를 발전적으로 여기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반응과 같은 생리적 반응 수준을 결정하였다(Crum, Salovey, & Achor 2013). 한국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 사회적 쟁점들(예, 한미 FTA, 천안함, 용산참사)을 판단하는 데 사회가 변화 가능한가에 대한 암묵적 지식, 즉 마인드셋의 작용에 관한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2012)의 연구는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쟁점들에 대해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반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정치적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갈등이란 대인 간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생각, 가치, 의견 등에서의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의 행위가 상대방의 목적이나 기대와 대립되는 것을 말한다(Jehn & Mannix 2001; Ohbuchi & Fukushima 1997). 일상에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한다. 갈등의 상황마다 대립하는 인물이 다르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이슈들도 다르다. 그런데 각각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상이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들이 갈등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오선영과 서용원(2014)은 사람들이 갈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갈등을 발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습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의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의견 및 가치 대립을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한다. 둘째, 갈등 상황을 자아(ego)에 초점을 두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평가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을 자신에 대한 도전 또는 위협으로 인식하여 의견 대립을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갈등을 자기 자존감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해석 마인드셋에서의 차이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주변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갈등에서 대립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반응과 관계 회복 여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들의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의 차이가 정치적 논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작용이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대립은 대인 관계 갈등 상황과는 다르다. 사람들은 대인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이 상호작용에서 행위자로서 직접적인 대립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되어 직접적인 자기 관련성을 높게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치적 갈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대립의 주체가 되기보다 관찰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 대인 갈등 상황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의 실증 연구는 활동적인 성격 특성과 보행 속도 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활동의 경향성이 투표 참여율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여 일상 활동에서의 적극성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였다(Noguchi, Handley, & Albarracín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특정 경향성의 심리적 작용은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작용하는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적 이슈는 의견 불일치나 대립 상황, 즉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대부분의 정치적 논쟁에서 분명하게 옳고 그른 답은 없다. 한 가치를 충족시키는 정책은 종종 다른 가치 혹은 입장을 희생시켜야 한다. 민주적인 절차는 각기 다른 의견과 대립을 표출하고 이것을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발전과 더 나은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은 투표와 같은 개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동 결정

의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발전적인 기능적 측면에서 정치적 대립의 도구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갈등의 역할에 대해 접근하였다. 뉴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치적 대립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는 대중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초래하며(Elenbaas & de Vreese 2008), 더 나아가 대중에 만연한 냉소주의는 투표를 포함하여 정치 참여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호 2009; Ansolabehere & Iyengar 1995).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고 믿는 냉소주의는 유권자들이 정치 스캔들에 대해 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며(Dancey 2012),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줄어든다(Belanger & Nadeau 2005). 비록 이러한 선행 연구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적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의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부정적 행위의 원인이 반드시 긍정적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투표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은 정치적 대립이 가지는 발전적 역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에 기반하고,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개인의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한다. 정치적 인식은 이슈와 관련된 객관적 정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사회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같은 자기 지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김도환 등, 2011; 이진안 등, 2012). 갈등의 순기능에 주목하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적 대립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바라보기보다 민주적인 절차적 과정에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므로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것’이라 여겨 정치적 논쟁을 건설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대립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아가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동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특정 행동을 이행할 가능성은 그 행동에 대한 긍정적 사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Montano & Kasprzyk, 2015). 동기 이론적 측면(Elliot 2006)에서 볼 때, 개인 간의 의견 차이나 대립을 학습과 발전의 기회로 보는 학습적 마인드셋을 통하여 정치적 대립의 긍정적 결과를 인식하는 것은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를 수반하므로 접근 행동인 투표 참여와도 관련이 높을 것이다. 즉, 정치적 논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실현 과정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개인차는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적 상관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투표 참여 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가설 3: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은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 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개인의 가치는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Caprara et al. 2006). 정치적 태도와 판단은 객관적인 정치적 이슈와 상황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선행 연구들은 가치가 정치적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Knutson 1995; Vecchione

et al. 2015). 예를 들어, Barnea와 Schwartz(1998)는 개인의 핵심 가치가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예측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Schwart 등 (2010)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Skitka와 Bauman(2008)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자신의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참여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며 2004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투표 의지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확신 및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은 정치적 참여의 강력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유·평등 가치가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기여함으로써 학습적 갈등 해석 마인드셋이 투표 참여 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조절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선행 연구들은 자유·평등 가치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로,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가치에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였다(Rokach 1979; Heaven, Stones, Nel, & Louw 1994; Schwartz & Sagie 2000). 사람들은 정치적 선택 상황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이때 평등 가치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사고틀로 작용하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rewer & Gross(200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유·평등 가치를 중요시 여길수록 정치적으로 변화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으며(Graham, Haidt, & Nosek, 2009), 인지적으로 규칙 혹은 전형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성에 보다 더 수용적인 평가 과정을 보인다(Okimoto & Gromet, 2016). 반면에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신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에 불관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ner &

Nosek, 2009; 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자유·평등을 핵심가치로 중요하게 여길수록 정치적 대립에 대해 관용적이고 건설적인 견해를 가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유·평등 가치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자유·평등의 정치적 지향성을 고려할 때, 자유·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치적 논쟁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대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명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핵심 가치에 기반하여 정치적 의견 대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자유·평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차이와 관계없이 자신이 가진 핵심 가치의 작용으로 정치적인 대립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이므로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긍정적 작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에서의 개인차에 따른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차이는 자유·평등의 가치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작용을 자유·평등의 가치가 조절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유·평등 가치의 조절 효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평등 가치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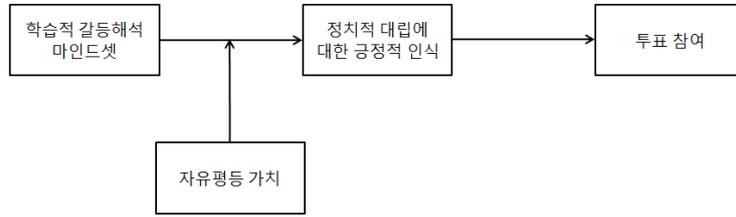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4.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의 관계는 자유·평등 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의 관계는 자유·평등 가치 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평등 가치 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측정도구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 척도

갈등해석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오선영과 서용원(2014)의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은 자기 성장이나 대인 관계 발달에 대한 갈등의 긍정적인 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갈등 경험은 나의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세상의 다양성을 배우는데 타인과의 의견 충돌은 필요하다”이다.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78이었다.

방 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대규모 4년제 대학에 소속된 305명의 대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모집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와 심리학과 연구 참여자 시스템에 게시된 참여자 모집 광고와 누증 표집(snowballing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 절차로 Google Document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설문 조사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일 전, 후 총 2회 실시되었다. 첫 번째 설문 조사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실시되었으며, 종속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설문 조사는 투표 참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일 동안 실시되었다. 연구 조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참여자들에게 온라인 상품권(2000원)이 제공되었다.

자유·평등 가치

참여자들의 평등과 자유 가치를 Schwartz 등(2014)이 7가지 핵심 정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들 중 시민 자유와 평등 가치 관련 4문항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이다.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70이었다.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치인들이 의견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적인 대립은 소모적인 싸움일 뿐이다”(역문항), “나라가 발전하려면 정치적 이념 및 정책 논쟁은 당연하다” 등 4문항

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71이었다.

투표 참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였는지를 범주 척도로 측정하였다(1=예, 0=아니오). 투표에 참여한 경우, 사전 투표하였는지, 혹은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이 제시되었다.

통제 변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소득 수준의 잠재적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각각 10점 척도(1=최하위, 10=최상위)와 7점 척도(1=100만원 이하, 7=700만원 이상)로 측정하였다.

통제 변인: 정치적 냉소주의

선행 연구는 정치적 냉소주의와 정치 참여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였다(박상호 2009; Ansolabehere & Iyengar 1995). 따라서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에서 정치적 냉소주의를 통제 변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권혁남(2012)이 사용한 7 문항 중 5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정치적 냉소주의를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우리나라 정치만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74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가 제안한 가설 모형은 학습적 갈등 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자유·평등 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moderated mediation) 모델이다. 전형적인 조절된 매개 모델에서는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과 조절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하지 않으며, 다만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을 통해 종속

변인에 미치는 매개 과정이 조절 변인에 의해 달라진다(Muller, Judd, & Yzerbyt 2005). 간접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간접효과의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불필요하며, 매개 변인의 작용이 예측될만한 이론적인 근거가 있을 때,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간의 관계의 유의도와 상관없이 간접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Hayes, 2009; Rucker, Preacher, Tormala, & Petty, 2011; Zhao, Lynch, & Chen,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에서 자유·평등 가치 수준에 따라 학습적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예측함으로써, 매개 효과 검증에 앞서 학습적 마인드셋이 투표 참여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Hayes(2013)의 SPSS 매크로 PROCESS 분석(bootstrapping 5000회 반복 추출)을 실시하여 조절된 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PROCESS 분석은 종속 변인이 범주 변인인 경우 자동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절된 매개 모델을 검증하였다. 첫째,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 변인인 자유·평등 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둘째,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후, 셋째,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강도가 조절 변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 검증 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예측 변인들을 센터링 처리 한 후 상호작용항을 계산하였다(Aiken & West, 1991). 마지막으로,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9.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호상관

수집된 자료에서 불성실 답변 1명의 자료와 극단치(outlier)(6명)를 제거한 후 총 298명(남자 138명, 여자 16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¹⁾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상호상관 값과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그리고 각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은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6, p < .01$).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유·평등 가치 지향 수준도 긍정적인 정치적 대립 인식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1, p < .01$). 또한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투표 참여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13, p < .01$).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자유·평등 가치 지향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12, p < .05$).

한편 평가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은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 간에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r = -.15, p < .01$),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냉소주의는 투표 참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2, p < .05$). 따라서 이 후 가설 검증 분석에서 정치적 냉소주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 소득 수준은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투표 참여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가설 검증을 위한 조절된 매개 모델 검증

먼저 학습적 갈등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Hayes(2013)의 SPSS 매크로 PROCESS 절차(모델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투표 참여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50, SE = .24, 95\% CI [.03, .98]$). 또한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5, SE = .08, 95\% CI [.02, .33]$). 이러한 결과는 가설 2와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Hayes(2013)의 SPSS 매크로 PROCESS 절차(모델 7)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자유·평등 가치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²⁾³⁾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자유·평등 가치 수준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pm 1SD$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해석하였다(그림 2).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의 관계는 자유·평등 가치 수준이 낮을 때 유의하였으나($\beta = .51, t = 5.00, p < .01$), 자유·평등 가치 수준이 높을 때에는 유의

2) 자료 조사가 사전투표일 이후 진행되었다. 사전투표한 참여자들($N=114$)을 제외하고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본 논문에 보고된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첫 번째 설문조사에 투표 참여 의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1=전혀 없다, 10=반드시 투표할 것이다)($M=9.06, SE=2.06$). 투표 참여 의도를 종속 변인으로 자료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논문에 보고된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사전투표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 투표 참여 의도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극단치 처리를 위해 SPSS(version 19) box plot을 사용함.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호상관 및 신뢰도

변인	1	2	3	4	5	6	7	8
1. 가계 소득 수준	—							
2. 사회경제적 지위	.70***	—						
3.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	.10	.01	(.78)					
4. 평가적 갈등해석 마인드셋	.07	.05	-.15**	(.72)				
5. 자유·평등 가치 지향	.08	.06	.12*	-.02	(.71)			
6. 정치적 대립 긍정적 인식	.07	.05	.26***	-.10	.21***	(.70)		
7. 정치적 냉소주의	.05	.02	.01	.05	.18**	-.09	(.74)	
8. 투표 참여	.03	.07	.00	.03	-.02	.13*	-.12*	—
평균(M)	4.87	5.71	3.59	2.77	4.01	4.00	3.76	.84
표준편차(SD)	2.06	1.84	.63	.74	.60	.66	.66	.37

주 1. 대각선의 괄호 안의 값은 변인의 내적 신뢰도 계수임.

주 2. 투표 참여는 1, 불참은 0으로 코딩함.

N = 298, *p < .05, **p < .01, ***p < .001

표 2. 조절된 매개 모델 검증을 위한 회귀 분석 결과

예측 변인	정치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투표 참여		
	모델 1			모델 2		
	B	SE	t/z	B	SE	t/z
(상수)	4.44**	.21	20.89	1.31	1.40	.94
정치적 냉소주의	-.11**	.06	-2.06*	-.44	.24	1.80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	.26**	.06	4.50	-.16	.26	-.60
자유·평등 가치 지향	.23**	.06	3.76			
학습적 마인드셋×자유·평등 가치	-.27**	.09	-2.99			
정치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51*	.24	2.08
R ²			.14			
Nagelkerke R ²						.05

간접 효과 분석 결과			
	추정계수	SE	95% CI [LL, UL]
낮은 자유·평등 가치 지향 (평균-1 SD)	.21	.12	[.01, .48]
높은 자유·평등 가치 지향 (평균+1 SD)	.05	.06	[-.03, .2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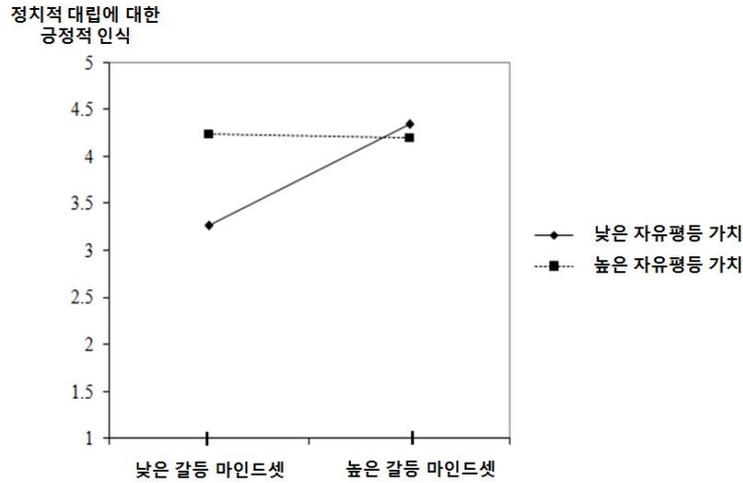


그림 2.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자유·평등 가치의 상호작용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t = -.23, ns$). 이러한 결과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간의 관계가 자유·평등 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 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자유·평등 가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적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절된 매개 지수 = $-.14, SE = .09, 95\%CI = [-.38, -.01]$). 자유·평등 가치 수준에 따른 간접 효과 크기를 비교한 결과,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자유·평등 가치 수준이 낮을 때는 유의하였으나, 자유·평등 가치 수준이 높을 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

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쳐 투표 참여 행동의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투표 참여 행동에 미치는 이러한 간접효과는 개인의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 인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탐구하였다.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 구성원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공고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일수록 정치적 갈등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 지향의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 지향 수준이 높을 때,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개인차는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반면,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 인식의 수준이 낮을 경우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치적 대립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인식의 수준의 유의한 주효과를 고려할 때,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인식 수준이 높은 경우, 학습적 마인드셋에 상관없이 정치적 대립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의하면,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은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매개작용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표 참여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 모형 관련 가설이 지지되어,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 지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 지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 투표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자유·평등에 대한 가치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마인드셋에서의 개인차와 투표 참여 간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투표 참여가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에 기반을 둔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한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영향을 지지하는 결과로,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논쟁을 건설적인 관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인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투표 행동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 행동 연구에서 갈등에 대한 인지적 분석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선행 연구는 인지적 특성에서의 개인차가 정치적 태도 및 정치 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진보주의자들은 논쟁적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tlock 1986). 구체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자기

가 지지하는 정책들이 잠재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이 잠재적으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흑백 논리에 의존하여 이분법적 사고체계에 따라 정책 결정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개인들의 인지적 특성의 차이가 투표 참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들이 정치 활동을 설명하는 개인차원에서의 예측 변인을 주로 5요인 성격특성에 국한시켜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통해 투표 참여를 예측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결정하는 심리적 기저에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작동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차이가 정치 참여를 위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에 따라 정치적 논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못한 개인차 변인인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동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투표 행동을 촉진하는 데에 정치의 순기능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표 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정치적 냉소주의와 같이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예: Elenbaas & de Vreese, 2008).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냉소주의보다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투표 참여 행동의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투표하지 않는 행동의 원인이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서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선행 변인을 검증하는데 보다 더 실제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투표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모두 선거일 전에 측정하고, 선거일 이후 설문을 실시하여 실제 투표 행동 여부를 측정하였다. 투표 행태 관련 선행 연구들은 투표 의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투표 후 실제 투표 참여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 측정치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데 선거 후 투표 참여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투표 행동 현상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응용적 시사점을 갖는다. Twenge, Campbell과 Freeman(2012)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는 이전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기회평등이나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성 세대보다 정치,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의 참여율은 기성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의 낮은 20대 투표율과 일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 2012b, 2016).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는 그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결정적인 자원임을 고려할 때,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Crum, Salovey와 Achor(2013)는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마인드셋이 비디오 시청 방법과 같은 교육으로 변화가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디오 학습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스트레스를 해로운 것으로 보기보다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심리적 증상 및 업무 수행 개선으로 전이되었다. 교육을 통해 마인드셋의 변화가능함을 증명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갈등에 대한 학습적

마인드셋을 고양하는 교육을 통해 정치적 대립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정치 참여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의 긍정적 작용이 발견됨에 따라 성격 변인에 비해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어떤 변별적인 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정치 행동에서 연구된 5요인 성격 특성 변인들과 변별타당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냉소주의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고려할 때(권혁남, 2013), 앞으로의 연구는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정치적 냉소주의에 대한 갈등 마인드셋의 작용을 성격적 5요인의 효과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치 참여와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인차를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을 일반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 투표 참여율에서 큰 차이를 확인하였다(Rubenson, Blais, Fournier, Gidengil, & Nevitte 2004). 기성 세대가 투표 참여를 시민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로 여길 가능성이 있지만(Twenge, Campbell & Freeman, 2012),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투표 행태에 미치는 효과는 젊은 세대에 비해 기성 세대에게서 미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연령층에 따라 학습적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투표율은 83.6%로 전체 20대의 투표율 5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는 선거 관련 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투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Greenwal, Carnot, Beach, & Young, 1987). 특히 본 연구의 첫번째

설문 조사는 선거일 바로 전에 진행되었기에, 설문 조사에 참여한 것이 투표 참여 행동을 촉진시켰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해석 마인드셋이 정치에 대한 인식과 정치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더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를 측정하는 시점 간에 충분히 시간적으로 차이를 둔 중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표집의 특성과 높은 투표율 간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접군과 연령대를 포함하는 표집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혁남 (2013). 전략적 뉴스가 정치 냉소주의, 투표 참여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 효과연구. *한국언론학보*, 57(1), 5-27.
- 김도환, 황상민, 최윤식 (2011). 정치 현상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유형과 심리적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83-208.
- 김현정, 박영옥, 박상희 (2015).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103-132.
- 나진경, 허진 (2016).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과 사회적 관계가 한국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4), 37-49.
- 노혜경 (2012). 정보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정치적 정보의 처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15-29.
- 박상호. 2009. 포털뉴스 이용동기가 인터넷 자기 효능감, 정치적 신뢰, 정치냉소주의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5), 153-175.
- 오선영, 서용원 (2014). 갈등에 대한 마인드셋 (mindset): 관계갈등 경험이 관계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2), 389-418.
-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2). 정치적 판단에서 심리적 요인의 역할: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69-8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a.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b.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esina, A., & La Ferrara, E.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 897-931.
- Ansolabehere, S., & Iyengar, S. (1995). *Going negative: How political advertisements shrink and polarize the electorate*. New York: Free Press.
- Bélanger, É., & Nadeau, R. (2005). Political trust and the vote in multiparty elections: The Canadian cas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4(1), 121-146.
- Blackwell, L. S., Trzesniewski, K. H., & Dweck, C. S. (2007).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predict achievement across an adolescent transition: A longitudinal study and an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78(1), 246-263.
- Brewer, P. R., & Gross, K. (2005). Values, framing, and citizens' thoughts about policy issues: Effects on content and quantity. *Political Psychology*, 26(6), 929-948.
- Burnette, J. L., O'Boyle, E. H., VanEpps, E. M., Pollack, J. M., & Finkel, E. J. (2013). Mind-sets matter: A meta-analytic review of implicit theories and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 Bulletin*, 139(3), 655-701.
- Caprara, G. V., Schwartz, S., Capanna, C., Vecchione, M., & Barbaranelli, C. (2006).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27(1), 1-28.
- Carney, D. R., Jost, J. T., Gosling, S. D., & Potter, J. (2008). The secret lives of liberals and conservatives: Personality profiles, interaction styles, and the things they leave behind. *Political Psychology*, 29(6), 807-840.
- Crum, A. J., Salovey, P., & Achor, S. (2013). Rethinking stress: The role of mindsets in determining the stress respon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716-733.
- Dancey, L. (2012). The consequences of political cynicism: How cynicism shapes citizens' reactions to political scandals. *Political Behavior*, 34(3), 411-423.
- Elenbaas, M., & De Vreese, C. H. (2008). The effects of strategic news on political cynicism and vote choice among young vo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58(3), 550-567.
- Elliot, A. J. (2006). The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Motivation and Emotion*, 30(2), 111-116.
- Freitas, A. L., Gollwitzer, P., & Trope, Y. (2004). The influence of abstract and concrete mindsets on anticipating and guiding others' self-regulatory effor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6), 739-752.
- Gallego, A., & Oberski, D. (2012). Personal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on hypothesis. *Political Behavior*, 34(3), 425-451.
- Gerber, A. S., Huber, G. A., Doherty, D., Dowling, C. M., Raso, C., & Ha, S. E. (2011). Personality traits and participation in political processes. *Journal of Politics*, 73(3), 692-706.
- Graham, J., Haidt, J., & Nosek, B. A. (2009).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ly on different sets of moral found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5), 1029-1046.
- Greenwald, A. G., Carnot, C. G., Beach, R., & Young, B. (1987). Increasing voting-behavior by asking people if they expect to vot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 315-318.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eaven, P., Stones, C., Nel, E., Huysamen, G., & Louw, J. (1994). Human values and voting intention in South Africa.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2), 223-231.
- Hibbing, M. V., Ritchie, M., & Anderson, M. R. (2011). Personality and political discussion. *Political Behavior*, 33(4), 601-624.
- Jehn, K. A., & Mannix, E. A. (2001). The Dynamic Nature of Conflict: A Longitudinal Study of Intragroup Conflict and Group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38-251.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 Kammrath, L. K., & Dweck, C. (2006). Voicing conflict: Preferred conflict strategies among incremental and entity theor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11), 1497-1508.
- Knutsen, O. (1995). Value orientations, political conflicts and left right ident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8(1), 63-93.
- Leighley, J. E., & Vedlitz, A. (1999). Race, ethnic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ompeting models and contrasting explanations. *Journal of Politics*,

- 61(4), 1092-1114.
- Levy, B. R. (2003). Mind matters: Cognitive and physical effects of aging self-stereotyp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4), 203-211.
- Levy, B. R., Zonderman, A. B., Slade, M. D., & Ferrucci, L. (2009). Age stereotypes held earlier in life predict cardiovascular events in later life. *Psychological Science*, 20(3), 296-298.
- Lindner, N. M., & Nosek, B. A. (2009). Alienable Speech: Ideological Variations in the Application of Free Speech Principles. *Political Psychology*, 30(1), 67-92.
- Mondak, J. J., & D Halperin, K. A. R. E. N. (2008).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personality and political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02), 335-362.
- Mondak, J. J., Canache, D., Seligson, M. A., & Hibbing, M. V. (2011). The participatory personality: evidence from Latin America.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01), 211-221.
- Mondak, J. J., Hibbing, M. V., Canache, D., Seligson, M. A., & Anderson, M. R. (2010). Personality and civic engagemen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trait effects on political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01), 85-110.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Noguchi, K., Handley, I. M., & Albarraçín, D. (2011). Participating in Politics Resembles Physical Activity General Action Patterns in International Archives, United States Archives, and Experiments. *Psychological Science*, 22(2), 235-242.
- Ohbuchi, K. I., & Fukushima, O. (1997).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conflict: Aggressiveness, self-monitoring, and situational varia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8(2), 99-113.
- Okimoto, T. G., & Gromet, D. M. (2016).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deviance partly explain ideological divides in social policy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1), 98-117.
- Rokeach, M. (1979). The two value model of political ideology and British politics.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2), 169-172.
- Rubenson, D., Blais, A., Fournier, P., Gidengil, E., & Nevitte, N. (2004). Accounting for the age gap in turnout. *Acta Politica*, 39(4), 407-421.
- Rucker, D. D., Preacher, K. J., Tormala, Z. L., & Petty, R. E. (2011). Mediation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Current practices and new recommenda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6), 359-371.
- Schwartz, S. H., & Sagie, G. (2000). Value consensus and importance: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4), 465-497.
- Schwartz, S. H., Caprara, G. V., & Vecchione, M. (2010). Basic personal values, core political values, and voting: A longitudin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31(3), 421-452.
- Schwartz, S. H., Caprara, G. V., Vecchione, M., Bain, P., Bianchi, G., Caprara, M. G., ... & Mamali, C. (2014). Basic personal values underlie and give coherence to political values: A cross national study in 15 countries. *Political Behavior*, 36(4), 899-930.
- Skitka, L. J., & Bauman, C. W. (2008). Moral convic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Political Psychology*, 29(1), 29-54.
- Tetlock, P. E. (1986). A value pluralism model of ideological reas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4), 819-827.
- Twenge, J. M., Campbell, W. K., & Freeman, E. C.

- (2012). Generational differences in young adults' life goals, concern for others, and civic orientation, 1966-2009.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1045-062.
- Uleman, J. S., Adil Saribay, S., & Gonzalez, C. M. (2008). Spontaneous inferences, implicit impressions, and implicit theor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329-360.
- Vecchione, M., Schwartz, S. H., Caprara, G. V., Schoen, H., Cieciuch, J., Silvester, J., ... & Mamali, C. (2015). Personal values and political activism: A cross national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6(1), 84-106.
- Verba, S., Schlozman, K. L., Brady, H., & Nie, N. H. (1993). Race, ethnicity and political resources: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04), 453-497.
- Zhao, X., Lynch, J. G., & Chen, Q.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1 차원고접수 : 2017.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7. 11. 15.

최종게재결정 : 2017. 11. 16.

Conflict Mindset and Voting Participation

Sunyoung Oh

Sungkyunkwan University

Young Hoon So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flict mindset can influence voting participation in 2016 National election. The present research proposed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in which learning conflict mindset has an effect on the voting participation by affecting positive perspective on political conflict and the strength of the mediation effect is weakened by the value of liberty and equality. A two-wave survey was conducted among 305 college students before and after election day.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conflict mindse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voting participation via positive perspective on political conflict. Furthermore, the strength of the indirect effects of learning conflict mindset on voting participation through positive perspective on political conflict was weaker at higher levels of liberty and equality value than at lower levels of the valu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nflict mindset is important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in explaining psychological mechanism underlying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voting participation in national election.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limitation and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onflict mindset, political conflict, political participation, voting behavior